

해양부 2008년까지 화물처리시스템 자동화

8월말까지 부산 북항 감만부두 등 시범사업

항만물류 효율성 제고위해 단계적으로 추진

전국 항만의 화물 처리 시스템이 자동화돼 항만 물류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정보통신부가 시행중인 IT 시범 사업의 하나로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RFID 기반 항만물류 효율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전국 항만의 수출입 컨테이너 정보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RFID 1차 시범 사업은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달부터 오는 8월말까지 부산 북항 감만부두 세방 터미널, 감천항 한진 터미널과 부산진 CY, 경인 ICD(내륙 컨테이너 기지), 미국 서부 롱비치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 컨테이너 1,500개와 육상운송차량 200대에도 전자태그가 시범적으로 부착된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카드 등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자동 인식하는 첨단 장치.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생산된 물품이 컨테이너선에 실려 운반되는 전 과정의 화물 운송 반출입 관리가 자동화돼 업무 처리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또 화주, 선사, 운송사 등이 서로 정보체계를 공유하고 정부 부처끼리도 화물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싱가포르 등 선진항만들은 이미 RFID를 이용한 해운 항만물류 인프라 자동화로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해양부가 진행중인 1차 시범 사업은 RFID 태그가 부착된 공컨테이너를 ICD(내륙 컨테이너 기

지)에서 반출하면 차량에 장착된 태그와 연계돼 컨테이너의 위치 추적이 가능해지고 게이트 반출입 확인이 자동화되는 시스템으로 미국 롱비치까지 운송되는 20피트 컨테이너 1,500개(1,500TEU)를 대상으로 한다.

해양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범 사업을 포함한 1단계 사업에서 국내 무역항과 ICD, 톨게이트 등 주요 철도 및 육상 운송 거점에 RFID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2008년까지 진행되는 2단계 사업에서 전체 육상 철도 항만 운송 거점과 전체 화물 컨테이너와 차량에 시스템을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RFID 구축 과정에서 터미널 운영사와의 비용 분담 문제 등 세부적인 적용 전략과 방안 마련을 위해 RFID 기반 항만물류 효율화사업 용역을 진행 중이다.

